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인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73-5254 (사무실) 77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사순절 제2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4. 다 나와 찬송드리세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긴 겨울이 지나고 봄기운이 온 누리에 가득합니다. 눈석임물 흐르는 소리가 계곡을 채우면서, 돌아나는 새싹들이 산을 깨어나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봄의 도래를 알리는 징후들이 나타나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에도 은총의 새 봄을 허락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줌”(사55:10)과 같이 주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주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평화의 일꾼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51:3 인도자

♠ 교 독 문 13. 시편 34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이성운 전도사 II. 김재흥 목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74. 오 만세 반석이신 다함께

성경봉독 I. 롬8:19 인도자

..... II. 시147:7-20 안길상 권사

찬 양 갈릴리 사람 찬양대

말 씬 I. 나로부터 시작되리 최인환 전도사

..... II.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김기석 목 사

거둠기도 다같이

헌신의 찬송 389.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
 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버리고, 어떻게든 사람들 속에 기쁨과 희
 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제멋대로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부끄럽습니다.
 이제 뜻은 높이되 몸은 낮추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귀를 막고 하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겠습니
 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피조물을 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레위기 강해(6)/김재흥 목사	에베소서 강해(33)/김기석 목사
기도 : 곽혜자 권사	기도 : 박효선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한지혜 선생 장영숙 전도사	인도자 박홍재 권사

2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준호 고광송 곽혜자 장혜숙 이춘희
	헌금위원	한완식 박창운 안길상 조병주 최숙화 백혜숙

절망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마음 깊은 곳에는 심연과도 같은 깊은 구멍이 있다. 지칠 줄 모르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몰두하며 살아가는 네가 이 절망의 구멍을 메우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두 손놓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 절망의 구멍을 두려워하며 피하지 말고 직접 맞닥뜨려 구멍을 서서히 메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커다란 입을 벌리고 우리를 빨아들이려는 절망의 구멍이 두려워서, 그리고 고통과 번민이 너무도 버거워서 도망치고 싶다는 유혹이 들 때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고통과 두려움에 몸을 맡기고 허우적거리거나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치유해야 할 상처를 나 몰라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라

고민을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털어놓았다가는 버림받았다는 느낌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바람을 다른 사람들이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고민을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면서 그들이 위로해 줄 거라고 기대하다가는 결국엔 비웃음과 조롱거리만 될 뿐이다.

그러므로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빗장을 닫아걸고 고통을 인내하며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한다. 언젠가 하나님은 네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들은 너를 진실한 사랑으로 이끌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신다. 죽기 전에 너는 그렇게도 갈망하던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받아들여진 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네 욕구와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네 마음을 채우고 네 가장 큰 바람을 이루어 주실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기만 하면 된다. 다른 것을 다 빼앗기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은 굳게 지켜야 한다. 그러면 이 믿음이 네

영혼을 치유해 줄 것이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라

이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너는 부모의 눈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들고 그들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너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데만 열중해왔다. 물론 그것을 전적으로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너는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했고 그래서 더 쉽게 마음을 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동안 공들여 확보해 놓은 너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기보다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너는 진정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가? 그것을 위해 기꺼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시 스스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닌가?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은 네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의지력이 있다고 해서 가능한 일도 아니다. 거듭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너는 이미 그 목소리의 존재를 알고 있고, 종종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그러나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듣고 나면 곧 회의를 품기 시작하고 그 소리를 따를 수 없다는 핑계를 만들며, 공연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한다. 이렇게 되면 끝도 없이 모순된 생각과 감정, 의견에 휩싸여 네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는 흘러들게 된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만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헨리 뉴엔,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 중에서

■ 마/음/으/조/워/는/글

봄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뻔발 구석이거나
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줌 팔고 싸움도 한 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 이성부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김창원 정지은 이한림 김명희 이선림 오진훈 노순옥
 장영숙 이광용 형인순 김근종 정옥영 박애순 백묘현 백승민 유명숙
 김용길 최영혜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이은옥 이유선 방극숙 장성호
 윤미경 서원금 김순복 전영웅 김훈동 김윤수 박옥경 김시영 임원민
 임수연 노용래 김용원 백해성 양재성 임미심 신윤정 최미선 이에정
 이성운 김재흥 최희영

월정헌금:

김명순 유증희 이재운 문금석 이재구 황선희 이용희 김정섭 김종문
 지명주 김영한 이희균 전영규 김경수 조병주 김현진 송의섭 배부례
 김수진 김승현 최철수 광권희 노미향 이은자

감사헌금:

김성한 조영순 고광송 허재영 오진훈 노순옥 박창운 허정윤 이어진
 이에정 송채원 송우석 김용길 최영혜 장재영 권혁순 박해경 이인섭
 김중수 김중문 지명주 미래홍부외과 무명1

생일감사헌금: 김현영 조항미 정완수 김지윤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하 재 두	정 두 리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김 영 한	박 흥 업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이 건 화	이 재 문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김 진 경	이 봉 배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문 금 석	조 병 주
베 다 니	박 흥 재	광 권 희	박 흥 재	광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김 희 우	김 현 주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김 재 광	이 기 분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오 복 순	강 순 배
빌 린 보	구 성 실	박 현 우	한 선 희	안 길 상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속	안 흥 속	오 현 정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임 수 연	최 영 선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김 혜 권	김 혜 권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박 미 영	윤 정 화
다 메 섹	박 해 경	최 영 혜	박 해 경	임 창 선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제1·3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2. **선교부 모임** : 오후 1시에 영아부실에서 선교부 회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3. **청년회** : 오후 1시 40분에 WCC 제9차 총회 주제인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세계를 변화시키소서!>를 중심으로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4. **세례·입교신청** : 오는 부활절에 세례·입교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비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새만금 기도회** : 14일(화) 오후 4시에 광화문 교단 빌딩 앞에서 새만금 갯벌 보존을 위한 기도회가 열립니다.
6. **신앙실천** : 생명이 깨어나는 새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숲에 나아가 잠시라도 생명의 신비에 대해 깊이 묵상해보십시오.

* 식당 봉사 : 베다니 속

* 헌화 : 김남홍 (할머니 1주기)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